

맥락으로 본 교과서 문화 통합

간략한 소개

공공부문용 교과서 출판에 대한 분석 및 세계화 관련 도전과제. 어떻게 국가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양상과 지구촌의 열망과 기대를 일관되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신규전문용어에 대한 요구, 코드 사용의 유연성, 언어 및 정보기술의 장벽을 통합할 수 있을까?

교과서 출판은 타 문화에 대한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교수전략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시각을 새롭게 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체계의 방법론과 경험을 도입하고자 하는 공적 의지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한국이 바로 그 예이다.

주요 단어: 국가교육과정, 세계화, 문화지평, 정보기술

언어: 스페인어

저자: 칠레 지그재그 출판사 (Zig-Zag S.A.)

책 한 권

이것은 승리이다.

모든 과실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다가 떨어진다.

빛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이 꺼지기도 하고,

나뭇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거리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바닥에 쓰러지기도 한다.

파블로 네루다 (1954), 책에 바치는 송가 (Oda al lib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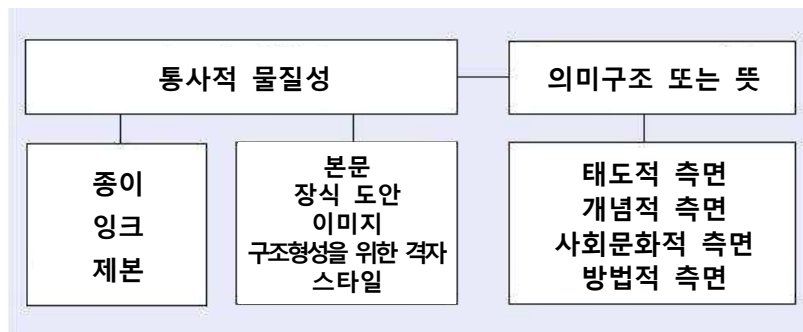
I. 교과서의 사회적 기능

사고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사회는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 사상은 더 선별적이 되며 칠레 출신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의 “책에 바치는 송가”에서 소개하는 것과 같이 언어는 빠르게 변화하고 바뀌고 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와 함께 설계 구조, 강조되는 지식, 건설적인 교수법 및 방법 등이 지식의 경계가 점점 더 희미해지는 세계화된 세계에 던져진 인간에 대한 개념을 더 총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교과서는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일시적인 것이기도 하다. 교과서의 통사구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지엽

적이지만 동시에 세계화된 현실에 둘러싸여 유의미한 학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도구를 사용하는 신세대 사용자의 기대에 얽매이게 된다.

교과서는 구성 면에서 다차원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 이유는 교과서가 지식과 교수법을 이해하기 쉽게 조정하는 방법론적인 접근법을 통해 여러 기대, 관심, 필요 또는 기타 동기를 가지고 교과서를 가까이 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를 망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룰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과서를 다루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념적, 경제적 용도로 쓰이거나 도구로서의 기능, 정보전달 기능,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거나 교과서 발행국가의 교육과정에 따라 의무적인 지시대상으로 취급되는 등 여러 가지 용도를 갖는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지시대상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수단으로 변모되며 교과서의 구조에 따라 교육체계와 학습 정도가 결정되게 된다. 즉, 교과서의 설계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코드 체계로 구성된 형식적 통사구조와 의미구조의 뜻 구성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측면을 상호 연결시키는 개념적 모형에 따르게 된다.



II. 교육부 공공정책에 기반한 교과서의 개념적 모형

칠레정부의 공공정책은 교과과정 중 중요 분야 교과서를 공립 교육기관 및 보조금 수령 교육기관, 즉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에 등록된 모든 학생과 교사들에게 매년 체계적으로 배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실에서 사용하고 학습 목표와 관련된 자원 및 지식과 각 과목 특유의 기량 뿐 아니라 인지력과 다방면적인 사고방식의 틀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칠레 정부의 현행 교육과정 체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육과 학습 과정의 핵심 도구이며 우리나라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교육과정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된 각 과목 특유의 재량, 지식 및 사고방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교사들을 위해서는 교사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교과서에 포함된 자원의 취급 및 극대화 방법을 소개하고 해당 과목의 이론 및 실습 지식뿐 아니라 현행 교육과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교육학(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관련 지식을 제공한다. 2010학년에는 교과서 구매 목록에 각 과정 및 과목별 학습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보조 디지털 자료를 포함시켰다.

해당 국가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2016년 교육부는 전체 칠레 학생들에게 교과서 1,700만부를 제공하였는데, 미취학아동 교육 2년, 초등교육 8년, 중등교육 4년 등 총 12년의 의무교육기간에 등록된 학생인구가 약 320 만 명으로 추정할 때 1인당 평균 6권의 교과서를 배부한 셈이 된

다. 즉, 5세부터 17세에까지의 취학연령에 속한 모든 남녀어린이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칠레 정부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평등을 보장하고 가정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도구이며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 사회 경제적 환경 또는 거주 영토 환경과 상관없이 동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교과서 선택 과정은?

1. 교과서 구매 및 시장에서의 존립 여부를 정하는 변수 관련

- 학교 교육과정의 변경
- 2년부터 4년의 기간으로 정해진 구매 계약 기간에 기준하여 각 계약서에 명시된 헷수에 따라 재구매가 이뤄진다.
- 교육부 전문가 및 교육기관에서 선정한 샘플 사용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교과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동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부적절 할 경우 이를 조연함.

2. 구매 시기와 관련

-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동안 교육부는 출판사측에 정해진 양의 교과서 구매 의사를 통보하고 이와 함께 교육과정 내용, 강조하는 방법론 및 교수법과 학년과 과목 등을 명시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 구매절차, 가제본 납품을 포함하는 제작 기간 등을 정하는 기술기준에 의거하여 구매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6개월이다.
- 위에 명시된 결정내용에 따라 출판사는 교과서의 기획, 디자인, 제작을 시작한다.
- 입찰서 및 관련 행정규정에 따라 출판사의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적격성 평가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음), 구매, 교육부에 교과서 납품이 이뤄진다.
- 교과서는 교과서 제작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교과서 제작 요건의 일반 사항에 현행 교육과정 기준과의 연계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3. 평가 관련

- 평가과정의 목적은 낙찰된 교과서의 교육부 품질 수준 및 기술적, 아동교육학적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평가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교육과정평가팀의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2단계로 교육분야에서 경쟁력이 인정된 외부 기관의 평가가 실시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칠레 카톨릭대학교와 칠레대학교가 외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정해진 선정 절차에 따라, 교과서 담당팀이 입찰을 실시하고, 교육부가 낙찰 받은 출판사에 구매할 교과서 분량을 통보한다.

III. 세계화 맥락에서 본 교과서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 분야는 일부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 학습 조직법, 교육 형태, 교사 양성 프로그램,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특성, 교육과정체계 등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에 명시된 여타 문화적 맥락과는 적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 교육 측면에서 교사 양성 시장의 자유도 및 대학 졸업 자격 기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교육 방법론의 차이로서 이로 인해 교사들이 일부 교육방법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초등과정 수학 교과에서 효율적인 수업성과를 위해 교실 수업을 조직해야 하는 싱가포르의 수학교육방식을 채택했을 때 교사들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후 바라는 속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 세계화 진척 정도 분석은 기술, 사회, 문화, 경제 관련 과목에서 세계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도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른 상황에서 수많은 내용을 학습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없으며, 전문적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디자인하고 평가하는 기관이 지금보다 많았던 적도 없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숙제를 하고, 새롭게 사용과 기능을 습득해야 하는 신규 전문용어의 판독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동시에, 언론과 세계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기관들은 각국의 발전현황과 차이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그 격차는 사회의 학습 능력 차이가 아닌 '기본에 충실하자'는 사상에 매몰되어 시장경제모형에 부응한(Diez, 2009) 경직된 교육 정책 때문에 발생한다. 해당 모형에 의거하여 볼 때, 기본이란 미래 직업을 위해 경제적으로 유용한 기초적인 도구지식으로, 새로운 구성방식과 능동적인 방법, 다학문적인 시각을 요구하는 복잡하고 세계화된 사회에서 독자에게 인지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방면의 지식을 가질 것을 요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식과 교육 도구의 삽입 및 타 문화에 대한 개방을 허용하는 교과서 제작을 위해 기술 조건을 유연화시키기까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예를 들어, 현행 역사 교과서에서 한국은 냉전체제, 경제 분야 및 양국간 FTA관련 사항에서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지만, 한국이 최상의 학습품질표준을 자랑하는 국가라는 것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다루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몇 년간 교육부는 학습 디지털 기자재 구매와 문학서적, 비문학서적 및 과목별 보충교재와 일부 학년의 경우 테블렛 PC를 갖춘 교실형 도서관 마련 재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육재원 지원을 증가시켰다. 각 교육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에서는 리더쉽 지원 사업 및 학교 행정 지원 사업, 교사 연수, 학습 기자재 도입을 위해 재원을 제공한다.

국가가 재원을 투입하여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자원을 공공시장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은 출판계, 생산자, 학습 증진을 위한 자재 개발 및 공급자들에게는 의심할 여지없이 사업 참여의 기회가 된다. 이러한 정부 주도 사업은 예를 들어 오늘날 세계에서 기술 관련 교육 분야에서 최상의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학력평가시험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무역 문화 교류 관계 성립에도 도움이 된다.

IV. 최종 고려 사항

첫째, 초청해주신 한국 정부와 주한 칠레 대사관측에 감사한다. 이번 기회는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가 종사하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그재그 출판사는 (Editorial Zig- Zag)는 국내 교육 및 문화 부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111년 역사를 지닌 회사로 광범위한 학생용 칠레 문학 도서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 언어, 과학 부문 교과서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약 40여개 외국 출판사를 대행하고 교육과정 및 학교자원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유통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연수는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한국 기관들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문학 분야에서는 칠레시장에서 한국 아동 및 청소년 문학 서적의 유통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고,
- 교육분야에서는 다양성이라는 맥락에서 교수법 및 학습방법 개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교육 성공사례를 상호 교류하기 위한 세미나 또는 회의를 가까운 시일 내에 공동 기획할 수 있으며,
- 교과서 목록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대화 채널 개설을 통해 향후 국가교육과정에 호환할 수 있도록 번역 또는 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고,
- 학습 지원을 위한 디지털 교육 자료 검토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칠레에서 한국 문화 알리기에 협조할 수 있다.